

기독교교육에서의 생명교육에 관한 연구

김 홍 진

(천안외국어대학교 교수)

I. 서론

II. 생명에 대한 고찰

1. 생명의 일반적 개념
2. 생명의 성서적 개념
3. 생명의 기원설과 창조론

III. 생명의 위기와 기독교 생명교육의 필요성

1. 생명위기의 현상과 원인
2. 생명위기와 기독교 생명교육의 필요성

IV. 기독교교육에서의 생명교육의 방안

1. 생명교육의 목적
2. 생명교육의 성격
3. 생명교육의 내용

V. 결론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기독교교육에서의 생명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생명공학의 발달은 인간 생명의 연장과 치료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었지만, 아울러 인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일으켜 생명의 위기를 초래했다. 본 연구는 이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대안으로서 기독교 생명교육의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제2장은 생명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일반적인 생명의 개념은 목숨이나 수명이며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생명에 대한 정의로서 보편화된 것은 물리적-생물학적 해석, 기계론적-유물론적 해석이 있다. 이들의 생명개념은 물질적, 진화론적, 구성원소를 중심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된 것임을 강조한다. 기독교에서는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며 주체도 하나님이며, 주인도 하나님임을 믿는다.

제3장은 생명의 위기와 기독교 생명교육의 필요성을 논했다. 생명의 위기 현상으로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고,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생명의 위기를 들었다. 이와 더불어 산업화에 따른 물질만능주의 사상의 팽배로 인한 생명 경시 현상도 들었다.

생명의 위기의 원인은 환원주의와 기계론, 인본주의적 사고, 과학중심주의적 사고, 도구적 합리성과 유물론적 사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기계로 파악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자연을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 사유했다.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생명의 위기의 원인 중에 인간의 타락과 탐욕을 들 수 있다.

생명의 위기는 결국 생명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 일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교육은 오히려 생명의 위기를 자초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 이제 그 대안으로서 기독교 생명교육이 필요함을 본 논자는 강조했다.

제4장에서 기독교교육에서의 생명교육의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기독교 생명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 생명교육의 성격은 하나님의 생명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독교 생명교육의 내용으로 생명위기의 인식 교육, 생명의 근원 교육, 생명의 존엄과 가치교육, 생명의 구원 교육, 생명의 보존 교육을 제시했다.

본 논문은 기독교 생명교육의 결핍과 교육을 지적하면서, 기독교는 생명공학의 진보에 대한 정보를 갖추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생명에 대한 윤리적 규범을 결정할 수 있도록 생명교육을 강조했다. 논자는 기독교 생명교육이 이론과 원리만 머물러 있는 수준에서 한 단계 나아가 생명교육에 대한 교육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논문을 마쳤다.

1. 서론

과학 문명의 발달은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생태계의 변형과 파괴의 문제를 초래했다. 의료기술과 생명공학의 발달은 인간 생명의 연장과 치료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지만 아울러 인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현대인간은 생명공학의 여러 혜택과 동시에 생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¹⁾ 이런 때에 생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 생명교육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생명공학의 영향으로 인한 인간의 복지증대와 이로 인한 생명의 위협 사이에서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생명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독교교육에서 생명교육의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 생명에 대한 성서적 고찰을 알아보고, 생명의 위기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생명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보았다. 둘째, 기독교교육에서의 방안을 마련하여 보았다. 본 논문은 이런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적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명의 위기를 직면하는 시대에서 생명의 위기 문제를 극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형성하는데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II. 생명에 대한 고찰

1. 생명의 일반적 개념

일반적으로 생명의 사전적 의미는 목숨이나 수명이며 살아가는 원동력

1) 이정배, “생명문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 『기독교사상』, 1989년 1월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p.14.

이다. 또한 사물의 유지하는 기한이며 사물의 중요한 요소로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철학적인 측면에서 생명에 대한 개념은 서양에서는 주로 생물체를 중심으로 정의되어 왔다. 동양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자연에까지 연결시켜서 파악해 왔다. 서양에서의 생명의 견해는 실재론과 관념론의 대립을 볼 수 있다. 실재론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유한한 생명으로서의 실재 모습을 생명으로 보는 견해이다. 관념론은 실재가 있어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실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본다. 관념론의 문제는 절대자로서의 신의 문제와도 관련하여 신학적인 측면과도 연결된다. 유기체론은 생태학을 토대로 발달한 심층생태학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명관으로 생명 자체를 전체적으로 깊이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생명을 유기적인 부분 과정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여 생기론이나 기계론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철학적인 면에서 생명의 문제는 매우 포괄적이며 명확한 답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일반 학문의 생명에 대한 정의로서 보편화된 것은 물리적-생물학적 해석, 기계론적-유물론적 해석이다. 물리학자 슈뢰딩거는 '생명을 부의 엔트로피를 먹고사는 계 즉, 자유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흡입하면서 내부에 축적된 엔트로피를 방출하여 스스로를 유지시키는 계로 추상했다. 생화학자 또는 분자생물학자들은 유전자에 기록된 정보를 생명의 특성으로 정의한다. 특히 생물학적 정의는 세포설에 진화론을 결합하고, 유전을 생명의 기본 특성으로 본다. 유전은 생명체의 자기복제(self-reproduction)이며, 그 기본 단위는 세포 즉, 단백질이라는 것이다. 세포 내 물질들은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 원래 세포가 갖지 못했던 특성과 기능을 갖게 된다고 본다.²⁾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생태학과 양자역학에서는 생명의 개념을 자연까지 확대하고 있다. 생태학은 생명의 단위가 개체 혹은 세포 등과 같이 분

2) Lehninger, A. L., *Biochemistry*(New York : Worth Publishers Inc., 1975), p.1034.

절할 수 있는 독립체로 규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생명은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전체로서의 개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기계론적 생명관과 자연관에 큰 충격을 주었고, 심층생태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심층생태학은 전체성과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생명의 크고 작은 단위들이 전체로서의 그물 망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³⁾

2. 생명의 성서적 개념

기독교에서의 생명은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된 것임을 강조한다. 생명을 말하면 우선 생기 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를 연상한다. 생명은 우주를 이끌어 올리는 가장 강력한 창조의 힘이다.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육체적인 생명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창 2:7).

생명에 대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하야(haya)라는 동사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은 ‘살다’, ‘생명의 가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동사는 건강과 번영으로 존재하는 것과 한편으로 고통과 질병과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 사이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⁵⁾ 또한 네페쉬(nepesh, 생명, 영혼)를 들 수 있다. 구약에서 많은 구절들이 인간의 네페쉬,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 창세기2:7에서 ‘사람이 살아 있는 생령(nepesh)’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윌러(Oehler)가 지적하는 것

3) 중국철학회, 「현대의 위기 동양철학의 모색」(서울 : 예문서원, 1997), p.290.

4) Gregoire Francois, *Les Grands Problems Metaphysiques*, 김형호 역, 「생명의 문제」(서울 : 삼성문화재단, 1974), p.115.

5) Harris, R. Laird & Archer Gleason L. Jr. & Waltke Bruce K.,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Volume 1, 번역위원회 역, 「구약원어신학사전 1」(서울 : 요단출판사, 1986), pp.350-351.

처럼, 동물들의 생명 즉 네페쉬의 근원은 땅인 반면, 아담의 네페쉬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⁶⁾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르하흐(ruah 바람, 호흡, 정신, 영)가 있다. 이 명사는 대체로 여성형으로 나온다. 바람이나 호흡이 어떻게 생명과 연관이 있는가? 여기서 호흡과 활동은 생명을 의미한다.⁷⁾ 이와 같이 생명은 ‘살다, 살아 있는 것, 숨을 쉬다, 생령’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령’이 생명의 본질이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낱말은 두 가지이다. ‘바이오스’(bios)와 ‘조에’(joe)이다. 전자는 보통 ‘생애’의 뜻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생애와 그 생활 모습을 표시한다. 그러나 후자는 죽음의 반대말로서 육체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한다. 히브리서 7:3에서는 ‘조에’(joe)로 나타나는 생명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을 말한다. 신약성경에서 나타난 생명의 의미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생명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다.

3. 생명의 기원설과 창조론

생명의 기원설에 대해서 진화의 한 설을 들면, 원시적 혼돈상태의 우주는 초고온상태의 소립자들이 압축상태로 되어 있었다. 이것이 붕괴되어 우주 팽창이 진행되면서 원소가 생성되었다. 우주 팽창이 계속 됨에 따라 원시행성핵(原始行星核)을 형성하였고 이 형성과정에서 태양계가 시작하였다. 별이 원시 은하 속의 기체 물질의 응축으로 생성될 때 물질의 일부는 그 근처에 남아 있다가 후에 행성계로 생성되었다. 태양계와 지구는

6) 위의 책, pp.731-735.

7) Davidson, A. B.,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T. & T. Clard, 1925), pp.1046-1047.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모습을 갖추었다. 원시 지구의 환경은 수소, 헬륨, 암모니아, 메탄, 수증기 등 환원성 대기였기에 생명체의 존재가 불가능했다. 이 상태는 안정상태였으나 태양, 광선, 화산활동에 의한 열, 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전기방전, 이 대기와 충돌하여 유기분자(organic molecules)들의 합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구의 온도는 서서히 내려가 수증기가 응결되어 빗물이 되면서 원시바다가 형성되었다. 대기 중에 생성되어 있던 원시생명분자들(primordial biomolecules)은 빗물에 용해되어 원시 바다와 호수에 쌓이게되었다. 여기에 축적된 유기물질은 지열에 의해 농축되면서 점차 고분자 물질로 합성되어 갔다. 유기분자들은 생존하는데 더 효율적인 공동생사(共同生死) 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이 유기분자 덩어리들은 중합체를 형성하여 환경에 적응과 변형을 일으키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활발한 물질대사 과정 중에서 이 중합체들은 각각 단백질과 핵산으로 생성되었다. 핵산이 단백질 합성을 지휘하게 되면서 고분자들은 한데 모여졌다. 그리고 이 고분자 집단을 흠착시키거나 포위할 구조적 장치가 필요했다. 이 필요에 부응한 것은 유기수프 속에 있는 지질(lipids)이었다. 지질은 자체의 화학적 성질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분자집단을 둘러싸게 된 것이다. 세포막 형성은 하나의 단위 생명체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자연과학은 생명체의 형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서 문제가 생명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이다.

생명의 발생설에서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발생설⁸⁾을 주장한 이래, 17세기 후반에 자연발생설에 도전하여 생물은 생물에서만 생긴다는 생물발생설이 이탈리아의 레디(Rede, 1626-1697)에 의해 출현했다. 1862년 파스퇴르(Pasteur)의 실험에 의해 자연발생설이 폐기되어 생물발생설이 과학적인 상식이 되었다.⁹⁾

8) 김영길 외,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4), p.17.

9) 위의 책, pp.17-19.

그러나 생물이 모두 생물체 모태에서 태어났다면 맨 처음 생물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을까? 여기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지구에서 자연 발생했을 것이다. 둘째는 다른 천체에서 왔을 것이다. 셋째는 초자연적인 창조물의 산물일 것이다. 이것에 대한 결론은 지구상의 생명발생설이 과학적으로 부정되었으며, 외계에서 생명체가 지구까지 왔다고 한다면 그곳에서의 생물체의 발생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결국 초자연적인 창조의 산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본다. 다윈의 진화론에서도 태초에 한 번은 생물이 자연적으로 출현하였다고 가정하고 있다.¹⁰⁾ 생명은 생명에서만 발생한다는 생물발생설이 과학적 사실로 오늘날 인정되고 있다.

진화론자들은 현재의 200만종의 동식물이 원시 생물체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저절로 고등동물로 변했다고 한다.¹¹⁾ 그러나 진화론자들 중에도 생물이 어떻게 200만종 이상이나 다양하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¹²⁾ 그러나 화석의 증거에서 종류대로 발견되는 것을 보아서도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을 신빙성 있게 해주고 있다.¹³⁾

인류의 출현에 대한 설명은 생명의 존엄성, 윤리관,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주기에 중요한 문제이다. 진화론자들은 인류의 출현도 진화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이 주장은 생물의 진화에 전제를 두고 있다. 사실상 인류의 진화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대단히 빈약하다.¹⁴⁾ 그러므로 인류의 출현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창세기2:7)는 창조설에 귀결된다. 생명의 기원을 논할 때 생명이 생명으로부터 유래한다면 그러면 최초의 생명은

10) 위의 책, pp.17-19.

11) 이양림, 「진화론의 실상과 창조」(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2), p.10.

12) 김영길 외, 앞의 책, p.17.

13) 위의 책, p.172.

14) 이양림, 앞의 책, p.64.

어디서 왔을까? 태초에 생명을 창조한 분이 계셔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과학적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¹⁵⁾

III. 생명의 위기와 기독교 생명교육의 필요성

1. 생명위기의 현상과 원인

자연과학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복지에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잉여문제는 생명 보존이 아니라 생명위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생명의 위기 현상은 크게 생명의 존엄성 상실로 인해 인간이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생명의 위기와,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생명의 위기를 들 수 있다. 자연계의 섭리를 거스르는 과학의 발달로 인한 문제는 자연생태계의 파괴라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 자체를 과학적인 목적을 위한 탐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의 존엄 그 자체까지 위협하고 파괴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데에도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화에 따른 물질만능주의 사상의 팽배로 인한 생명경시 현상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생명의 존엄성 상실로 인한 인간 생명의 위기는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 생명공학은 생물이 갖는 다양한 기능을 응용하거나 인공적으로 재현한 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과학이다.¹⁶⁾ 이들 중 유전자 조작 및 재조합의 문제와 인조 염색체 합성 및 인간 복제, 보조생식술 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생명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역기능과 부작용은 생명 질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위의 책, p.37.

16) 채영업, 『생명공학의 이해와 활용』(서울 : 교육과학사, 1989), p.16.

특히 인간 복제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천부적 인권파괴’, ‘인간의 종말’이라고 불리면서 생명의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생명공학의 발달로 장기이식과 관련된 윤리 문제도 예상된다. 인간의 필요한 기관이나 조직을 얻기 위해 새로운 자녀를 의도적으로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생물학적인 조직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그리고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자연 생명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것은 자연환경의 문제들로서 오염, 자연자원의 감소, 인구증가, 땅의 유실 및 지구의 생명지원체제가 위협에 처하는 것이다. 생태계의 파괴는 회복이 힘들며,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지구적이며 치명적이다. 산성비,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등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 요인이 된다. 농약이나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 오염도 심각하다. 이로 인해 인간, 포유류, 조류 등을 포함한 생태계에 총체적인 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¹⁷⁾

생명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철학적 사조에 근거한다. 환원주의와 기계론, 인본주의적 사고, 과학중심주의적 사고, 도구적 합리성과 유물론적 사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기계로 파악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자연을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 사유했다는 것이다.

환원주의는 현대과학이 서구에서 태동한 이래 가장 주류 사고로, 사물에 대한 분석을 과학의 주된 방법으로 간주하는 견해이다. 이 사고는 사물을 쪼개고 녹여서 입자의 구성 성분을 분자 수준으로 조사하고, 다시 분자가 어떤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끝없이 탐구하는 것이 가장

17) 임경순, “자연과학의 새로운 변화와 생명가치,” 『생명가치와 환경윤리 학계간 연구』, 연구보고서, 1997. 2, p.41.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환원론적 접근방법은 필연적으로 물질주의를 신봉하게 되는데, 그 탐구 대상이 무생물적 존재를 넘어 생물에 이르면 기계론으로 비화된다. 물질로 이루어진 사물들은 조직된 기계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과 생물체도 기계로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계론자들은 생명체라는 것은 물질의 한 집합체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의 특정 존재 양식의 결과 나타나는 물성’¹⁸⁾으로서 인간도 하나의 생물이고, 생물은 물질의 집합체라는 물질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들은 생명 현상은 정교한 기계처럼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풀 수 있는 실체라는 것이다.

인간중심위주의 사고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연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다. 자연을 합리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켰다. 인간과 물질을 분리한 이후 정신의 세계만을 강조하였고, 자연은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파악하였다. 이 관념은 데카르트에 의해 절정을 이룬다. 이들은 자연은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며 분해되는 원자론적 사고를 한다. 이와 같은 인간중심주의적 경향은 헤겔에서 나타난 ‘자연의 인간화’ 개념이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¹⁹⁾ 인간중심위주의 사고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보았다. 결국 이 사고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대상으로 파악하였고, 생태계를 파괴시킴으로 심각한 생명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과학기술중심주의는 공해와 대기 오염층의 파괴, 다양한 생물 종의 급격한 감소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위기의 주 원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 번영에 기여한 바 크지만 그 역기능으로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우선 핵무기의 발달은 핵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기술 발달은 본래의 의도와

18) 하두봉 외, 「인간이란 무엇인가」(서울 : 민음사, 1991), p.85.

19) 김명자,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서울 : 동아출판사, 1991), p.89.

는 달리 환경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켰다.

도구적 합리주의와 유물론은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시켰다. 자본주의의 도구적 합리성은 번영과 기술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태학적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안정상태(steady-state)와 제로성장상태(no-growth society)와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²⁰⁾ 자본주의는 생산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부를 수탈했으나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 기술, 기계, 자본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칼 막스에 의해 전개된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도 자연은 인간의 소비재로 인식하였다.²¹⁾ 이는 자연을 가공하여야 할 대상으로 인간의 목적을 위한 원료로 인지될 수밖에 없게 한다. 이런 인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가중시켰다.

2. 생명위기와 기독교 생명교육의 필요성

생명위기를 초래한 원인들은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사유체계에 연관되는데, 그 근저는 교육과 관련된다. 생명체는 그 가치를 지니며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은 이와 같은 생명의 소중함을 간과하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의 위기를 묵인함은 물론 조장해왔다.²²⁾ 교육은 생태계를 위협하는 이성의 타락과 그에 바탕 한 거대한 파괴력의 형성과정에 기여하였다. 교육은 끊임없는 분석적 사고만을 길들여 사물과 인간을 유기적 관계로 연결짓지 못하였다. 교육의 인간관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난다. 개체로서의 인간은 전체에서 양적인 함을 구

20) Robin Attfield, *The Ethics of Environmental Concern*(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p.14.

21) 오명석, "생태계의 신학적 이해," 『기독교사상』, 1997년 10월호, 통권 제46호, p.122.

22) 정영수, 『인간교육의 탐구』(서울 : 동문사, 1995), p.296.

성하는 한 개체일 뿐이며, 사회라는 양적 전체에서 기계적인 구성원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교육은 생명위기의 원인들을 간과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그 책임을 느끼고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데 교육이 담당해야 할 목이 크다 하겠다. 그렇다면 생명의 문제와 관련되는 현대사회의 교육적 요구는 무엇인가? 생명에 대한 교육적 요구의 하나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의 회복이다. 현대사회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했다. 생명공학의 발달은 생명의 신비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던 생명의 존엄성을 약화시켰으며 생명의 숭고함을 사라져 가게 하는 생명경시현상까지 부추기고 있다. 이제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이다. 둘째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윤리의식의 회복이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현상은 머지 않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환경파괴의 문제는 인간의 무지와 욕망이 과학기술과 어울려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이로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가 깨지고 불균형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 일을 담당해야 한다. 생명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데 교육이 지대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없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역시 교육이다. 학교 교육에서 생명의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발달과 물질위주의 사고로 인한 생명경시풍조를 간과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상실케 하였으며, 인간중심주의 사고, 과학기술중심주의, 도구적 합리성 등의 사고 하에서, 자연을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서만 파악하는 데 일조 했을 뿐이었다.

이런 학교교육의 이중성 앞에서 기독교교육이 감당해야 할 과제는 크다

하겠다. 이제 기독교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한 사람의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독교적 행동규범이나 가치 판단을 길러 주어야 한다. 기독교 생명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내면화시키고, 기독교적 생명관과 윤리관을 확립시켜 주어야 한다. 이런 생명교육을 위해서 생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절하게 개발되어 기독교적인 가치관 교육을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따라서 생명과 관련된 체계적인 기독교적 세계관, 자연관, 생명관 교육이 필요하다.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생명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임을 인식하게 한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다.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생명을 구원하며, 생명의 영원을 강조하며 보존하는 길을 제시한다.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의 개념, 본질,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기독교생명교육은 인간 생명의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결코 자연과 무관하지 않다. 생명교육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강조해야 한다. 세상을 구원하는 종교인 기독교는 세상 속에 자연을 포함시킨다. 기독교의 생명구원은 자연의 생명도 포함시킨 구원이다. 생명의 위기에 직면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독교의 생명교육이 필요하다.

IV. 기독교교육에서의 생명교육의 방안

1. 생명교육의 목적

생명교육은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질서를 인식할 때 바로 서게 된다. 생명에 대한 바른 정보를 알리고, 생명의 존엄에 대해 올바른 가치

관을 형성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한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기독교 생명교육의 목적이 된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기독교 생명교육의 목적은 설정된다. 이런 기초 아래서 기독교교육에서의 생명교육의 목적은 분명하다.

기독교 생명교육의 핵심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은 생명을 지닌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그 생명의 성장 및 발달 과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는 분야이다. 기독교교육에서 생명교육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한다. 즉, 하나님은 인간과 여타 생명체에게 각각의 생명에 대한 존재 이유와 그들 간의 가치 질서를 주었다는 선험적 전제에 기초한다.²³⁾ 생명과 관련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도덕적 행위의 규범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기독교적 생명관의 의식을 배양하여,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기독교교육의 기능이며 동시에 사명인 것이다.

2. 생명교육의 성격

일반교육의 생명교육은 오히려 생명의 파괴와 위기를 초래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생물학자인 리 실버(L. Silver)는 곧 부모의 취향에 맞는 ‘맞춤식 자녀’(designer child)들이 태어난다고 예측하고 있다.²⁴⁾ 또한 지놈(genome) 지도가 완성되면 인간은 앞다투어 우월한 지놈을 소유하려 할 것이며, 사회는 인간이 지놈을 인간의 정체성으로 동일시하게 될 날이 멀지 않다. 학습자인 인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지놈이 지배적 요인이 된다

23) 한미라, “생명윤리, 21세기 기독교교육의 화두,” 『기독교사상』, 2001. 2. 통권506호, p.163.

24) L. Silver, *Remaking Eden*(N. Y. : Avon Books, 1997), p.299.

면 극단적으로 교육무용론이 제기될 것이며, 교육의 목적 및 기능 자체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보다 중시되는 사회가 도래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이제 이 대안으로 기독교교육에서의 생명교육의 성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독교 생명교육의 중요한 성격은 하나님의 생명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반 학교 교육에서 생명에 대한 경시로 인한 생명위기 현상들을 직시하면서 생명교육의 문제점을 보고 이를 대안으로 하나님의 생명교육을 요청한다. 앞으로 생명윤리는 모든 인간사회의 시민 윤리가 되어야 한다²⁵⁾는 주장처럼 기독교의 바른 생명교육이야말로 시민 사회의 바람직한 생명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는 인간 공동체 그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생명교육이 필요하다.

기독교교육에서 생명교육의 두드러진 성격은 일반 학문과 학교에서의 생명교육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교육의 성격을 지닌다. 기독교교육에서 생명교육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좁게는 개인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이 생명을 회복하여 정당한 생명권을 누리게 위해서이며, 넓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이다.

3. 생명교육의 내용

1) 생명위기의 인식 교육

생명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면서 먼저 생명의 위기 문제를 교육해야 한다. 생명의 위기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서 생명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생명공학의 발달, 기계론적 사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문명은 말할 수

25) D. Gracia, "The Intellectual Basis of Bioethics i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Bioethics*, 7(2/3), 1993, pp.97-107.

없이 발달했지만 부가적으로 이로 인한 생명의 위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생명의 위기를 제공한 환원주의와 기계론, 인간중심주의 사고, 과학기술중심주의 등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 생명교육에서는 하나님 자녀로서 생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의식을 배양하는 교육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생명교육에서 왜 생명의 위기가 왔는지를 파악하고 인식시키는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생명의 위기를 자초하게 한 죽음의 문화를 인식시켜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생명의 위기의 원인 중에 죽음의 문화를 지적한다. 죽음의 문화는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을 만연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생명의 과정에서 나타날 자살, 낙태, 장기매매, 안락사, 뇌사판정 등에 대해 보편타당 하다는 의식의 성향을 만연시키고 있다. 이를 지적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죄악 된 문화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해야 한다.

생명의 위기를 초래한 또 하나의 사고는 인간의 욕심과 타락에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생명의 공존으로 인하여 평화와 안정을 유지했다.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자연과 인간의 생명은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땅은 엉겅퀴를 내었고(창3:18), 인간의 욕심은 자연을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인간의 욕심과 타락은 끊임없이 인간 역사를 이어왔고 그 결과 생명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왔다.

2) 생명의 근원 교육

생명교육의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기원을 어디서 유래한다고 보는가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든다. 생명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근원문제이다. 기독교교육에서의 생명교육의 근거는 성경에서 찾는다. 성경에서는 인간과 생물의 생명에 대한 근원을 매우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이야기한다. 창세기1장 26절에서 28절에 근거하면,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며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한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기독교 생명교육은 이 사실을 생명교육의 가장 기초로 삼는다. 그리고 생명은 수태된 때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믿는다. 욥의 고백(욥10:8-12)과 다윗의 시(시139:13-1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완전한 인격을 갖추고 영혼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라고 해석한다.

성경에 나타난 생명에 대한 언급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절정이며,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한다. 각자가 부여받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온전히 지킬 뿐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조작하거나 복제하거나 파괴하는 일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일 수 있다.²⁶⁾

세속적인 성찰은 하나님의 생명권을 부인하고 있다. 일반 교육에서 생명의 주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근거를 돌린다. 이들의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화론적 사고에 기인한다. 진화론의 생명은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 생명에 대한 주권이나 권한을 어떤 것에 두지 않는다.²⁷⁾ 그들은 단지 생명의 현상만 볼뿐이며, 그 생명은 인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뿐이다. 리 실버는 보편적 의미의 생명이란 ‘자기를 특징짓는 정보와 조직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복제와 진화를 하는 산물’로 정의한다.²⁸⁾ 그리고 인간에게만 있는 생명의 의미는 의식적 생명(conscious)의로서의 의미다. 이것은 대뇌의 기능에 근거를 둔다.²⁹⁾ 결국 생물학에서는 세포의 원형(prototype)을 우연성과 진화의 원리로 설명한다.

26) 김민철, “성경적 생명의료윤리,” <http://www.sangeum.co.kr>

27) 전교훈, 『철학적 인간학 연구(II)』(서울: 경문사, 1994), p.13.

28) L. Silver, *Remaking Eden*, p.34.

29) 위의 책, pp.36-37.

이처럼 성경적 생명관과 생물학적 생명관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긴장이 있다. 이 때 기독교 생명교육의 핵심은 생명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생명의 근원, 생명의 기초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생명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근원교육은 바로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다. 크리스찬들은 최초 세포의 발생도 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을 믿으며,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는다. 이 사실을 교육하는 것이 기독교 생명교육의 중요한 내용이다.

3) 생명의 존엄과 가치교육

기독교의 생명교육에서는 생명의 존엄성 교육을 해야한다. 기독교에서 모든 생명은 고귀하다고 본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마25:40)는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생명의 가치는 고귀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의 존엄성은 존재 자체에 근거한 것이다.

현대 문화는 인간의 가치를 효용가치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기에 인간의 가치가 상품화되거나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생명은 효용성으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생명에 대한 평가는 존재자체가 가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기독교적인 생명의 존엄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 인류가 처한 직접적인 생명의 위기는 인간을 기계로 취급함으로써, 본래의 자기를 잃어버린 결과로 초래된 현상이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니며, 탄생의 순간부터 하나밖에 없는 존엄한 존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생명의 위기를 제공한 인간중심, 과학기술 중심사고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이분법적 사고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존엄성을 묵인시켰다. 기독교 생명교육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생명은 통합적인 유기체로서 함께 공존해야하는 관계임을 교육해야 한다.

기독교 생명교육에서는 생명의 가치에 관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지니는 생명의 가치에 관한 고양이 필요하다. 인간이 지니게 되는 본질적 측면이나, 인식의 주체자, 사회적 존재자로서의 존엄성과 자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에 관한 내용이 기독교 생명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생명의 구원 교육

기독교 생명교육에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구원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생명에 관한 종교인 기독교는 생명의 구원문제에 초점이 있다. 생명의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 생명의 타락을 전제로 한다. 이 생명을 구원하는 교육이 기독교교육이다. 기독교의 생명교육에서 구원의 범위는 협의적으로는 인간의 영혼구원에 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생명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다. 더욱이 생명의 구원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의 생명에 대한 구원도 선포한다(요한3:16).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생명 즉 자연의 생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기독교 생명교육에서는 이 전체론적인 구원을 교육해야 한다.

이원론적(dualistic)관점에서 인간은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에서는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실체로서의 영혼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이 하나가 된 생명 전체를 영혼이라고 본다. 따라서 육체와 영혼은 양 실체가 아니라 결합된 생명체이다. 생명 자체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영혼도 전체 생명을 작동시키는 모체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생명교육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 교육이어야 한다.

특히,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복제인간의 출현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인간의 구원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으며, 어떤 복제인간도 피조물로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에 예외될 수가 없다. 이로 인한 인간의 구원문제도 교육해야 한다.³⁰⁾ 테드 피터스는 인간의 영혼은 DNA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적 은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코울-티너(Ronald Cole-Tuner)도 인간 개개의 영혼이 유전자에 의해서 규정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그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³¹⁾ 복제인간과 인간의 유전자가 동일하다고 해서 같은 영혼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유전자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생명교육은 이 복제인간의 영혼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5) 생명의 보존 교육

생태계의 파괴 원인 중에 하나는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한 결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으로 인간은 자연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자연을 보존해야 할 관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파괴하라는 말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땅을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라 땅과 자연을 잘 가꾸고 다스리며 보존하고 이용하라는 말이다. 이것은 땅과 자연에 대해 하나님이 청지기적 사명으로 분부하신 말씀이다. 이 자연에 대한 사명을 교육해야 한다.

자연을 파괴시키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며, 자연 생명의 파괴를 막을 수

30) 김홍진, “복제인간에서 나타날 생명 윤리 문제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과제,” 『기독교 사회윤리』, 제4집, 2002. 2, p.124

31) 김영선, “인간복제와 영혼,” 『기독교 사상』, 2001. 2, 통권506호, p.124.

있는 유일한 존재도 인간이다. 현재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생명위기의 문제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한 사고에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체를 포함해서 무생물적인 요소인 자연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개념을 확대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전체론적인 입장을 취해야 함은 당연하다.³²⁾ 생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극단적이 방법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다.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대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자로서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연의 생태계 앞에서 인간 우월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과 함께 하면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성과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의식의 주체로서의 기독교 생명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V. 결 론

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무한한 진보는 생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한층 더 느끼게 한다. 생명공학의 발달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인간 생명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윤리적, 신학적 대답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교육에서는 생명공학의 진보에 대한 정보에 부족과 무지로 인하여 생명교육은 아직 기초상태이다.³³⁾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는 생명에 대한 정의와 근원과 가치에 대해서는 변함 없는 진리가 있다. 이 기독교적 생명을 교육한다면 혼란스러운 문제는 원리와 윤리적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젠 기독교교육은 이론과 원리만 머물러 있는 수준에서 한 단계 현실적인 생명문제에 접근하여 생명교육에 대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학교와 교회에서 생명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하다. 기독교교육을 하

32) '전체론'은 프랑케나가 생태윤리학에서 생명의 가치를 어디까지 부여해야 하는가의 논의를 전하는데 사용한 'holistisch'를 번역한 것이다.

33) 한미라, 앞의 책, p.170.

고 있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및 교회의 교육기관들에서 생명교육은 시대적 요청이요, 더 이상 가르치기를 지연시킬 수 없는 시급한 덕목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생명교육은 성경적 생명관이 기본 주제가 되어야 한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모든 인간과 자연의 생명은 귀중하고 가치가 있으며, 인간의 생명은 구속사의 결과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도 하나님의 구속의 포함되며 자연의 생태계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더욱이 생명윤리문제가 나타나는 현대에서 비판적 성찰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프락시스 중심의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곧 생명윤리문제와 관련된 삶의 상황에서 출발하여 성경적 생명관과 신학적 성찰을 거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생명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틀 속에서 생명교육에 대해 좀더 체계적이고 대중적인 교육이 기독교 학교과 종교기관 그리고 교회에서 활발히 전개되리라 전망한다.

참고문헌

- 김명자.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 서울 : 동아출판사, 1991.
- 김민철. “성경적 생명의료윤리.” <http://www.sangeum.co.kr>
- 김영길 외.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4.
- 김영선. “인간복제와 영혼.” 『기독교 사상』. 2001. 2. 통권506호 p.124.
- 김홍진. “복제인간에서 나타날 생명 윤리 문제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제4집, 2002. 2. p.124
- 오영석. “생태계의 신학적 이해.” 『기독교사상』. 1997. 10. 통권46호 p.122.
- 이정배. “생명문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 『기독교사상』. 1989. 1. p.14.
- 이양림. 「진화론의 실상과 창조」.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2.
- 임경순. “자연과학의 새로운 변화와 생명가치.” 『생명가치와 환경윤리 학제간 연구』. 연구보고서. 1997. 2, p.41.
- 정영수. 「인간교육의 탐구」. 서울 : 동문사, 1995.
- 중국철학회. 「현대의 위기 동양철학의 모색」. 서울 : 예문서원, 1997.
- 진교훈. 「철학적 인간학 연구(Ⅱ)」. 서울 : 경문사, 1994.
- 채영업. 「생명공학의 이해와 활용」. 서울 : 교육과학사, 1989.
- 하두봉 외. 「인간이란 무엇인가?」. 서울 : 민음사, 1991.
- 한미라. “생명윤리, 21세기 기독교교육의 화두.” 『기독교사상』. 2001. 2. 통권506호 p.163

A. B., Davidson.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 & T. Clard, 1925.

A. L. Lenhninger. *Biochemistry*. New York : Worth Publishers Inc., 1975.

Attfield, Robin. *The Ethics of Environmental Concer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